

한화, 태양광·유화·첨단소재 결합... '18兆-1.6兆' 솔루션

〈매출〉

〈영업익〉

한화솔루션 '솔루션 비전' 공유

김동관 부사장 그룹 경영전면에서 경영 효율성 높이고 R&D 제고 등 각 부문 역량 결합해 시너지 기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 전면에 본격 나서는 한화솔루션이 올해 약 10조원의 매출을 2025년까지 18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린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영업 이익도 올해 5000억원 수준에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화케미칼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합병해 올해 초 출범한 한화솔루션이 비전 공유식을 열고 '솔루션 제국'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화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6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한화솔루션 비전 선포식에서 (왼쪽부터) 류두형 첨단소재 부문 대표, 김희철 큐셀 부문 대표, 김동관 전략부문 부사장, 이규영 케미칼부문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솔루션

딩 오디토리움에서 김희철 큐셀 부문 대표, 이규영 케미칼 부문 대표, 류두형 첨단소재 부문 대표, 김동관 전략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지를 다지는 '비전 공유식'

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올해 들어 태양광·석유화학·첨단소재 3개 부문이 하나로 합쳐 한화솔루션으로 거듭난 이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진 첫 공식 행사였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행사에서 통합법인 출범을 계기로 각 부문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시너지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연구·개발(R&D) 역량을 제고하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개 사업 부문의 통합 운영을 통해 물적·인적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업간 시너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은 특히 차별화 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약 10조원으로 예상되는 매출 규모를 2025년까지 약 18조원으로 늘린다는 중기 목표를 처음 공개했다. 영업이익도 올해 5000억원 수준에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행사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한 김희철 대표는 "임직원 한 분 한 분이 문

제 해결의 열쇠로 거듭나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규영 케미칼 부문 대표는 "3개 사업 부문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각 부문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류두형 첨단소재 부문 대표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한화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앞서 지난해 7월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화솔루션 사명 변경이 확정됐다. 한화솔루션은 통합법인 출범 이후 김희철 대표, 이규영 대표, 류두형 대표가 각 부문을 책임지는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SKT, 'T멤버십 혜택' 확 늘렸다

'T데이' 기존 10개서 19개로 확대 이달 29일엔 빙스서 40% 할인 5G부스트파크 혜택 제휴처 늘려

SK텔레콤이 신년을 맞아 T멤버십 혜택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은 T데이 혜택 강화, 테마파크 제휴 확대를 비롯해 5G 고객을 대상으로 부스트파크 혜택을 7개 제휴처로 확대하는 등 새해를 맞이해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1월에 제공되는 T멤버십의 T데이 제휴 혜택을 기존 10개 내외에서 19개로 확대한다. T데이는 SK텔레콤이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T멤버십 등급과 상관없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첫째주 월~금요일과 매주 수요일에 정해진 제휴처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중 혜택이다.

1월 첫 주인 6일부터 10일까지 12개 제휴처에서 5일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파리바게뜨 전품목 1000원당 200원 할인이 1회에 한해 최대 1만원까지 가능하다. 24시간 편의점 CU에서는 쇼콜

라티라미슈, 고구마롤케이크 등 인기 디저트 20종에 대해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던킨도너츠에서는 행사 기간 1회, 최대 5000원까지 전품목이 50% 할인된다.

이밖에 할리스커피, 11번가, Btv, 주라기월드 전시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한화아쿠아플라넷, 비발디파크, 온라인 이마트몰, 넥센타이어 등에서 할인 혜택이 있다.

T데이의 매주 수요일 혜택도 강화됐다. 15일부터 피자헛 프리미엄피자 방문포장 구입시 50% 할인 혜택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스타벅스 응모 이벤트를 통해 카페 아메리카노 1잔 무료 기프티콘 제공, 29일에는 1인당 1회, 20만원 한도에서 빙스 전 메뉴 40% 할인 혜택을 차례로 받을 수 있다.

T멤버십 VIP 등급에 제공되는 'VIP 픽' 혜택도 기존 6개에서 9개 제휴처로 늘어난다. 5G 고객 대상의 부스트파크 할인은 기존 5개 이용처에서 7개로 제휴처가 확대된다. 5G 이용 고객이 대상 제휴처에서 T멤버십 카드 또는 쿠폰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스카이라이프 제작사 투자 확대... 콘텐츠 확보

스튜디오앤뉴 지분 9.9% 취득

KT스카이라이프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보좌관', '미스함무라비' 등을 제작한 콘텐츠 제작사 투자에 참여한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7일 '보좌관', '미스함무라비' 등을 제작한 스튜디오앤뉴와 전환우선주(CPS)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스튜디오앤뉴의 지분 9.9%를 취득하며 향후 경쟁력 있는 드라마 콘텐츠 확보와 함께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튜디오앤뉴는 국내 메이저 영화 투자·배급사 뉴(NEW)가 지난 2016년 '태양의 후예'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드라마 제작사다. '안시성' 등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회사 '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자체 보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고 풍부한 제작 경험을 갖췄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스튜디오앤뉴 투자를 통해 예능·오락과 더불어 드라마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작 노하우를 공유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현대차 "모빌리티 시장선 게임 체인저"



정의선 부회장 미디어 행사 인간 중심 미래모빌리티 비전 공개

"우리는 도시와 인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고민하고, CES는 시작점으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소비자가전쇼(CES) 2020'에서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개와 함께 향후 모빌리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현대자동차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0에서 '인간 중심의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간 중심의 도시 자문단'을 구성, 모빌리티가 도시의 기반 시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자문단은 역동적이고 자아실현적이며 포용적 도시 구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

'인간 중심의 도시 자문단'의 아트 마크먼 텍사스 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세 가지 핵심 가치 모두 중요하지만 현대차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한 '역동적인 도시 구현'에 최적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자문단의 활동과는 별도로 미래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을 위한 '미래도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현존하는 도시를 특별별로 분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지역조현대차 전략기술본부장(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도시를 분석하고, 역동적인 미래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대차가 제시할 UAM과 PBV, Hub 등 세 가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동적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비전 이미지

- 1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 없이도 도심 내 이동 가능한 모빌리티
- 2 이착륙장(Skyport) Hub 최상단에 위치해 PAV와 Hub를 연결
- 3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UAM과 PBV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PBV와 결합으로 새로운 커뮤니티로 탄생
- 4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기반 모빌리티) 맞춤형 서비스를 이동 중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심형 친환경 모빌리티
- 5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 없이도 도심 내 이동 가능한 모빌리티

자료/현대차그룹

인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를 제시했다. 현대차는 세 가지 솔루션을 토대로 미래도시와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동시에 현대차의 차세대 브랜드 비전 '인류를 위한 진보'를 가속화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는 복안이다.

UAM, PBV, Hub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류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인간 중심의 역동적인 미래도시를 구현하는 핵심으로 작용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UAM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고 PBV는 도로 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두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미래도시 전역에 설치될 Hub와 연결돼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한다.

현대차는 'UAM-PBV-Hub'를 축으로 하는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으로 고객에게 끊김 없는(Seamless) 이동의 자유로움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

비스'의 2대 사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현대차의 중장기 혁신 계획 '2025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현대차는 이날 최초로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을 공개했다. 현대 PAV 콘셉트 'S-A1'은 전기 추진 방식의 수직이착륙 기능을 탑재하고 조종사를 포함 5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PAV 콘셉트는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됐다.

'CES 2020' 개막 하루 전인 6일 열린 '현대차 미디어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우리는 도시와 인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했다"며 "UAM과 PBV, Hub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끊임 없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은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류를 위한 진보'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이동 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간 경계를 허물고, 의미 있는 시간 활용으로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루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역동적인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ysw@